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5.19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98.30원 (+0.30원)

KOSPI

7,516.04 (+22.86, +0.31%)

KOSDAQ

1,111.09(-18.73, -1.66%)

국고채 10년 금리

4.221(+0.049%p)

Special Report

해외주식	2026 하반기 해외주식 유망테마 [김재임]
미국주식	Trump Showtime: 하반기에도 미국증시를 즐기세요 [강재구]
음식료/담배	2H26 Outlook: '영업환경 변화' / '중국' / '배당' [심은주]
운송	줄 서는 호르무즈 [안도현]
해외채권	[2026년 하반기 해외채권 전망] 피벗(Pivot)의 소멸 [허성우]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미 국채금리와 NVIDIA 실적 [박승진]
DIN (Doo It Now)	코스피 만 포인트 시대 생존전략: 여주사(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김두언]

기업분석

케이엠더블유	중요한 건 올해가 아닌 내년도 실적입니다 [김홍식]
아이씨티케이	국내 최초 빅테크 레퍼런스 확보, 지금 매수하세요 [김홍식]
삼영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전력 부족이 부른 또 다른 사이클 [권태유]

산업분석

은행	기대 요인은 금리와 비은행, 그리고 신금융 [최정욱]
Weekly	
건설	개별 종목 이벤트에 따른 매수 추천 [김승준]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OCI홀딩스, 한미약품, CJ제일제당, 팬오션, 에스엘, 심텍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해외주식

2026년 5월 18일 | 인덱스

2026 하반기 해외주식 유망테마

미국 우주 산업, 발사대에 서다
(우주 데이터센터에서 골든돔까지)

스페이스X 상장과 우주 데이터센터가 촉발하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 스페이스X IPO 밸류에이션 1.75조 달러 이상(EV/Sales 58배), 지수 편입·우주 테마 ETF 수급 효과로 우주 섹터 전반의 리레이팅 촉매
-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핵심은 우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미래 사업 가치 반영
- 지상 데이터센터 3중 병목(전력·인허가·비용) 심화로 우주가 구조적 대안으로 부상, 빅테크 경쟁 진입 가속
- Upside 시나리오 시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센터 10년 누적 비용 $27bn, 지상 ($45~90bn) 대비 압도적 비용 우위 실현

D2D, 위성통신의 판도를 바꿀 핵심 성장 동력

- D2D(Direct-to-Device),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 초기 상업화로 빠르게 전환
- FCC는 2026년 ASTS 위성군 운영 허가, 스페이스X 스펙트럼 매입 승인 등 D2D 육성 의지 잇달아 확인
- MSS 스펙트럼은 복제 불가능한 희소 자원, 스페이스X·아마존·ASTS의 대규모 확보 경쟁이 잠재력을 방증
- 아마존 Globalstar 인수로 D2D 시장 무게중심 이동 공식화, 선점 경쟁 본격화
- 방대한 MNO 가입자 기반에 군사 수요(골든돔·SDA) 가세, 민관 양면 성장 경로 동시 개방

골든돔, 청사진에서 수주로: 우주 방산 수혜 본격화

- 1,850억 달러 규모 골든돔 프로젝트, 행정명령 1년 만에 아키텍처→예산→계약 발주로 가시화
- 우주기반요격체 (SBI) 계약 (12개사·20건· 총 $32억) 2026년 4월 공식화, 비전에서 실제 기업 수혜로 전환점 도달
- 로캣랩, 플래닛랩스, 인튜이티브 머신스, AST스페이스모바일, 레드와이어 등 우주 Pureplay 수혜 포지션 확보

우주 섹터별 대표 Pureplay 종목 점검

- 로켓랩(RKLB): 1)발사 & 스페이스 시스템 전반에서 수주 최고치 경신으로 실적 가시성 확보, 2)중대형 로켓 Neutron 2026년 첫 발사 & 2027년 수익 기여, 3)수직계열화 가속으로 스페이스X에 비견되는 우주 사업 역량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업사이드 요인
- 플래닛 랩스(PL): 1)지정학적 긴장 속 '위성 서비스' 사업 모델로 성공적 전환, 2) 첫 흑자 전환, 성장하면서 돈을 버는 단계 진입, 3)구글, 앤스로픽과의 AI 관련 파트너십, 우주 데이터센터 협력 등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등이 기업 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
- AST 스페이스모바일(ASTS): 글로벌 통신사와 독점적 파트너십 맺은 D2C 선도 주자, 위성 제조와 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 발사 지연이 리스크로 상존하나 궤도 발사 속도 이전 대비 가속화 확인될 경우 반등 모멘텀 강할 것

-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달 착륙선 NOVA 기반의 달 탐사 전문 사업자에서 위성 제조, 지상국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우주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로 진화. 달 표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대표 수혜자
- 파이어플라이(FLY): 발사, 달 착륙선, 궤도 운영을 통합하는 우주/방산 플랫폼. 방산 소프트웨어(SciTec) 인수효과로 골든돔 수혜주로 부각, 중형 발사체 Eclipse 개발은 중장기 기대 요인
- 레드와이어(RDW): 우주 인프라 + 무인기 전문 사업자. 26년 1분기 신규수주 최고치 경신 & 골든돔 수주풀에 선정되어 수주 모멘텀 지속 전망. 달 표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수혜주

미국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 hanafn.com

2026년 5월 19일 | Global Equity Research

[미국주식] Trump Showtime

AI 슈퍼사이클 모멘텀 & 확장될 리쇼어링

Trump Showtime: 10월까지 강한 증시 부양 동기

-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4%(역대 최저) + 11월 중간선거
  → 승부수는 이벤트 소비 자극과 증시 부양
-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질 이벤트는 미국의 서비스 소비 자극: 기업실적 향상, 증시부양, 자산효과, 소비심리 개선의 선순환 만들어 저소득 무당층의 지지율 회복
- 6월부터 시작될 Showtime: 6/14 UFC(트럼프 생일) → 6~7월 월드컵
  → 7/4 America 250까지 39일 압축 소비 모멘텀
- 하원 공화당 218 vs 민주당 215, 3석 이상만 뒤집히면 다수당 지위 상실: 10월까지 부양 동기 강력

변하지 않는 흐름: 미국향 투자 대기자금 10~11조 달러

- 정부 유치 투자 9.6조 달러 + 초대형 플랫폼 4사(GOOGL, AMZN, META, MSFT) 약 7,000억 달러
- S&P 500 연초 대비 EPS 컨센서스 +7.1%, SPS +2.8%: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상향
  → 비용 통제 확인
- 투자사이클이 기업 매출에 반영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기대 내용

AI 인프라 병목 사이클: 수혜 영역이 단계적으로 이동 중

- 단기 병목(HBM, GPU, 첨단 패키징) → 중기(네트워킹, 광모듈, AI 서버 통합)
  → 장기(데이터센터 외부 인프라)
- 네오 클라우드 3사(코어위브·네비우스·아이렌) 세 자릿수 매출 성장 지속: 강력한 AI 컴퓨팅 수요 확인
- 서버 CPU 시장도 지형 변화: AMD가 인텔 독점 시장 잠식 중, GPU 수요를 CPU로 연결하는 플랫폼 전략 확대

차별화: 리쇼어링 & 피지컬 AI 본격 집행 단계

- 9.6조 달러 투자 약속의 집행 진입: 자본재·자동화 부품·전력 수요 확대
- 자동화 셀 → 휴머노이드 확장: 액추에이터, 머신비전, 베어링 직접 수혜
- 초기 부가가치는 부품(실행 계층), 중장기 부가가치는 두뇌(AI 계층)로 이동

섹터 전략: 정보기술·산업재 선호

- 정보기술: 이익수정비율 1위, 반도체·하드웨어 중심 EPS 컨센서스 지속 상향
- 산업재: EPS 수정비율 모멘텀 가장 빠르게 가속, 리쇼어링·피지컬 AI 확산 수혜
- 헬스케어: EPS 전망 최하위 + 정책 노이즈
- 소재: 이익수정비율 하위권, 모멘텀 둔화

2026년 하반기 추천종목

- 공급 병목: 마이크론(MU), 엔비디아(NVDA), 시게이트(STX), 코히어런트(COHR), 갤럭시 디지털(GLXY)
- 시장 지형 변화 & 기업의 진화: AMD(AMD), 아마존닷컴(AMZN)
- 피지컬 AI: 노벤타(NOVT), 리걸 렉스노드(RRX), 코그넥스(CGNX), 팀켄(TKR)
- 소비 모멘텀: 비자(V)

2026년 5월 19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음식료/담배

2H26 Outlook: '영업환경 변화'/ '중국'/ '배당'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5월 15일

오리온(271560)
BUY I TP 220,000원(상향) I CP 141,000원

CJ제일제당(097950)
BUY I TP 370,000원(상향) I CP 228,500원

삼양식품(003230)
BUY I TP 1,800,000원 I CP 1,444,000원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하반기 중형주에 주목

하반기는 업종 전반에 마진 스프레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유리하다.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장기 배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오리온/KT&G/삼양식품이 각각 33%/27%/17% 상승하여 업종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시현했다. 다만, ① 상반기 코스피 내 대형주-중소형주 간 괴리가 큰 폭 벌어진 만큼, 하반기는 코스피 내 중형주 상위권에 위치한 종목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참고로, 섹터 내 대형주로 분리되는 종목은 KT&G/삼양식품, 중형주 상위권에 오리온/CJ제일제당/농심이 위치한다. ②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기 때문에, ③ 해외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면 하반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Issue Check: 전쟁이 촉발한 영업환경 변화/ 중국/ 배당

하반기 ① 영업환경 변화, ② 중국 소비 회복, ③ 배당에 주목한다. 첫째,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시킨 유가 급등은 곡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아미노산 가격도 동반 상승세이다. 5월 들어 종전 기대감으로 고점 대비 일부 조정 받기는 했으나, 대체재인 대두박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도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다.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메치오닌은 주요 업체의 원재료 수급 중단(메탄 등) 기인해 단기 숏티지에 따른 유의미한 판가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 하나증권은 지난 3/18 중국전략x음식료 콜라보 자료를 통해 중국 소비 경기가 코로나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충격이 저점을 통과하며 초과 저축 현상이 마무리 되고 있다. 하반기 소매판매 증가 및 돈가 회복에 따른 소비자물가 정상화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익스포저를 보유한 내수 업체에 대한 투자가 유효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배당이다.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탑라인 성장이 제한적이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 F&B 업체 주가가 배당 확대를 통해 우상향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Top Picks 및 관심종목

오리온 및 CJ제일제당을 Top Pick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이익 체력 저하 및 밸류에이션 De-Rating을 경험했던 오리온 및 CJ제일제당의 이익 정상화 및 수출 성장 회복에 따른 재평가가 기대된다. 오리온은 올해 중국 매출 YoY 두 자리 수 성장이 전망되며, 주주환원 확대 의지도 피력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작년 하반기 급격한 바이오 부문 실적 저하를 경험했으나, 바이오 시황이 급변했다. 2Q26부터 바이오 실적 QoQ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종목은 해외 실적이 꾸준한 삼양식품이다.

2026년 5월 19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운송

줄 서는 호르무즈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5월 18일

팬오션(028670)
BUY I TP 9,000원(상향) I CP 5,950원

대한항공(003490)
BUY I TP 32,000원 I CP 25,550원

진에어(272450)
BUY I TP 7,000원 I CP 6,080원

HMM(011200)
Neutral I TP 21,000원 I CP 19,960원

CJ대한통운(000120)
BUY I TP 120,000원 I CP 89,200원

호르무즈 개방 이후 에너지 수송 모멘텀 기대

호르무즈 통항 재개 이후 글로벌 탱커 수요는 단기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가능 선박량이 제한적(일간 최대 140척)이기 때문에 스팟 시장 내의 가용 선복량을 호르무즈 인근에 묶어두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권의 에너지 수송 루트가 중동에서 미주로 다변화되고 있는 점과 VLCC 내 그림자선대 제재까지 감안하면 VLCC의 수요는 3~4년간 공급을 크게 초과할 예정이고, 탱커선 운임도 2026년 말까지는 초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전쟁 이후 BDI/SCFI 등 해상 운임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재고 축적 수요가 반영되며 단기간은 운임 하락을 방어할 전망이다. 팬오션에 대해서도 에너지 수송 관점에서 재평가할 시점이다.

동일 업종 내 기업별 실적/전망 격차 확대 중

항공유가가 전쟁 이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며 항공주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와 실제 유류비 사이의 차이가 극도로 벌어진 상황이다. 일시적 감익보다는 근원적으로 유가(비용증가)를 승객에게 전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항공을 주목한다. 장거리 노선과 항공화물 사업부가 비용 증가를 상쇄해줄 예정이고, 운항안정성이 높아 단거리 노선에서의 점유율도 상승할 수 있다. CJ대한통운도 택배사 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주7일 배송과 기술경쟁력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하반기부터 MS 상승에 기반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의견 Overweight으로 상향, Top Picks인 팬오션/대한항공 위주 매수 추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운송 섹터가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Top Pick 위주의 접근을 추천한다. 팬오션에 대해서 Strong BUY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존 타겟 Valuation이던 P/B 0.55배를 에너지 선사로서의 Re-rating을 감안하여 0.8배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9,000원으로 상향한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 이후 강력한 탱커 모멘텀을 기대한다. 대한항공은 2분기 적자를 전망하나, 3분기부터는 항공권 단가 인상을 통해 턴어라운드할 전망이고, 원유 수급만 원활해진다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통한 2027년 이후의 증익 사이클 진입을 주가에서는 선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6년 5월 19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채권

Fixed Income

[2026년 하반기 해외채권 전망] 피벗(Pivot)의 소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채권시장 전망

[미국 채권시장 전망]

- 3분기에도 고유가 국면 이어질 경우(배럴당 $100 수준 유지할 경우)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3.75%). 10년물 금리 상단 4.8%까지 열어둘 필요
- 유가 고점 확인 후 물가 고점까지의 시차는 과거 전쟁 국면보다 길어질 것. 내년 1분기 중 물가 고점 예상되나, 3분기 유가 추가 상승 시 물가 고점 시기는 이연될 수 있음
- 고유가 지속에도 실물 경제 타격은 제한적.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 하단을 지탱할 것

[일본 채권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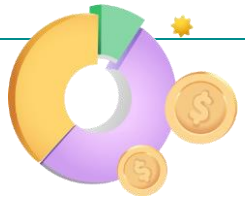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 6월을 시작으로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인상 전망. 연내 기준금리 1.50%, 10년물 금리 상단 3.0%까지 열어둘 필요
- 일본 당국의 '달러-엔 환율 160엔 사수' 의지는 확인. 단, 미국과의 금리차가 유의미하게 좁여지지 않는 한 엔화 강세 폭은 제한적
- 해외의 일본 국채 순매수 급증하며 기류 변화 포착. BOJ의 점진적 인상 기조 속에 일본 국채 매력도는 커지는 중. 본격적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 이후

[브라질 채권시장 전망]

- 점진적 인하 기조는 유효. 연내 기준금리 13.25% 전망
- 인플레이션 경계심과 대선 이슈로 장기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하며 브라질 수출액 급증. 원자재 고점 형성 전까지 헤알화는 원화와 달러 대비 강세 유지될 것. 단,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 확대 유의
- 만기가 짧은 헤알화 표시 채권 및 달러 표시 채권 중심의 보수적 투자 권고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5.18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미 국채금리와 NVIDIA 실적

NVIDIA 실적과 FOMC 회의록, 케빈 워시 연준의장 취임: SMH/DRAM, IYW, PAVE, QUAL, QGRO와 DIVO/QD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과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329.0억달러, +188.5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560.6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반면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21.4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총 -206.8억달러의 순유출이 진행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대체로 선진/신흥 지역 전반에 걸쳐 고른 자금 유입 기조가 유지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장기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부담스러운 수준의 CPI와 PPI를 연이어 확인하고 난 후, 주식시장에서는 후순위로 미뤄두었던 할인율(금리)의 부담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반영 중이었으나, 전 고점 돌파 과정에서 일부 매물 출회의 복합적인 명분으로써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신임 연준 의장의 취임과 Nvidia의 실적 발표, 미중 정상회담, 이란 관련 전쟁 이슈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맞물려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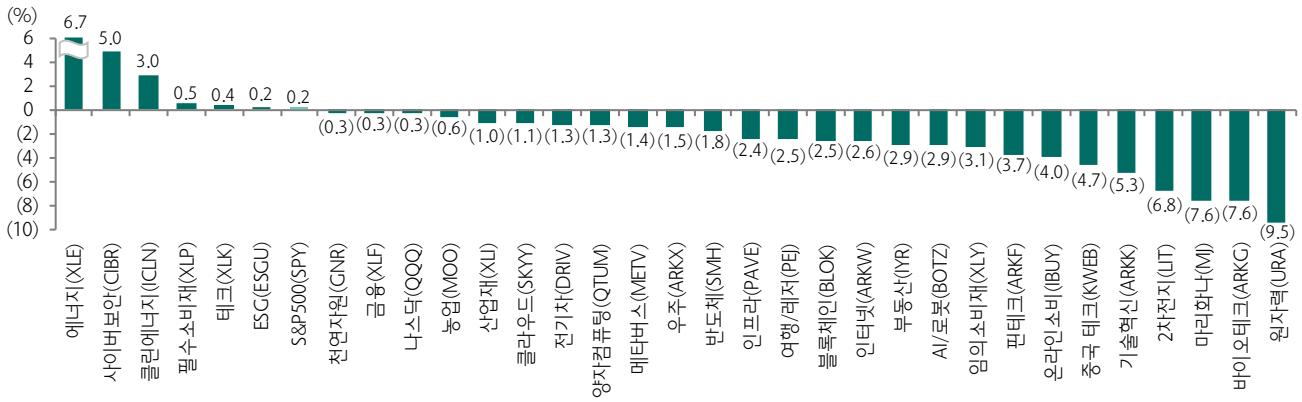
- 실적발표 시즌은 이미 정점을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무게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공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오는 수요일(5/20)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는 Nvidia가 되겠다. 시장에서는 이미 그동안 높아졌던 기대치를 경계하는 모습이 뒤섞이고 있으며, 그동안의 패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살펴 볼 수 있겠다. Target(5/20)과 Walmart(5/21) 중심의 소매 기업들과 Baidu(5/18), NetEase, NIO(5/21) 등 중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확인될 예정이다.

- Nvidia의 금번 실적에서는 2분기 가이던스와 Blackwell·Rubin의 공급 전망에 주목해야 하겠다. Blackwell 관련 매출 컨센서스의 예측 범위가 극단적으로 넓은 만큼, 숫자 자체보다는 수율 개선과 램프 속도에 대한 경영진 코멘트가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마진은 지난 분기에 H20 수출 규제로 61%대까지 하락한 전례가 있어 Blackwell 시스템 믹스가 마진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가 관건이 되겠다. 중국 리스크는 이미 지난 가이던스에 반영된 상태이지만, 대체 칩 개발 진행 상황과 미중 회담 내용에 대한 해석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Rubin 플랫폼은 다음 분기 매출 기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젠슨 황 CEO가 Blackwell과 Rubin 합산 1조달러(2026~27년) 매출을 공언한 만큼, 양산 일정과 사전 수요 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여부가 중장기 주가 방향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컨센서스가 이미 가이던스 중간값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평가 상황에 따라 단순 실적 기대 충족 만으로는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한편 국채금리가 전 고점들을 상향 돌파하면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운데, 4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5/20)이다. 4월 FOMC 당시 연준 인사들 간의 의견(매파 3, 동결 8, 인하 1)이 크게 분열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교롭게도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등장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상황과 더불어, 케빈 워시가 연준의 기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인물인 만큼 파월 전 의장이 남아있는 연준의 기존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시장 불안심리는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의사록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에너지 충격을 일시적 요인으로 보는지, 혹은 구조적 요인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 괴리 상황이 되겠다.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인사들의 평가와 정책금리 판단의 수위가 시장 영향에 주요 단기 변수가 될 전망이다.

- ETF 포트폴리오는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SMH/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역시 실적 모멘텀 기반의 투자 고려 대상 종목군이 되겠다. 당장 시장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IYW/XLK(기술주)와 같은 섹터 ETF로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종목들을 가져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 할인율(금리)의 부담은 존재하지만, 6월 중순(6/12)으로 예상되고 있는 SpaceX 상장 기대와 더불어 정부 정책 및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X/NASA(우주항공) 역시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들이 되겠으며,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주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MADE(제조업),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QUAL/SPHQ(퀄리티)와 QGRO(퀄리티성장) 등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성 대응 및 헷지 관점에서 USO(원유선물), DBA(농산물선물), UCO(원유 2배)/SCO(원유 -2배) 등의 ETF들도 단기적인 활용이 가능한 종목들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변동성 완화 기대가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서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5.11~5.15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5월 19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코스피 만 포인트 시대 생존전략: 여주사(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RA 김민근 minkeunkim@hanafn.com

(결론적으로) 코스피 만 포인트 시대 생존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선점이다**. 시장은 동맹, 중동, 반도체 사이클을 동시에 재평가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 한국이 있다. **동맹의 기준은 이념과 주둔군 수에서 제조능력, 공급망 대응력, 복구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동은 에너지 공급 창고에서 안보 비용의 중심지**로 바뀌고, **반도체는 경기민감주에서 안보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 따라서 답은 분명하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코스피 만 포인트는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다. AI 혁명기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인프라를 넘어 국가와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자산이다.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증가는 시간에 비례하며 합산 1천 조원 전망도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주도주를 넘어 대장주(시가총액 1등)가 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할 것이다.

시장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수는 넓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주도주가 끌어올린다. 그리고 틀을 깨기 위해 변화를 선점하는 것이 이 판의 최종 승리자다.

첫 번째 변화는 동맹의 재평가다. 과거 동맹의 기준은 이념, 조약, 주둔군 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준은 훨씬 현실적이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가 더 빨리 생산하고, 운송하고, 복구할 수 있는가다. 제조능력, 공급망 대응력, 복구 역량이 동맹의 새로운 언어가 된다. 이 변화는 한국 시장에 구조적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수출은 7,097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734억달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선 수출도 320억달러로 24.9% 늘었다. 수출의 양과 질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다.

방산도 같은 흐름에 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3년 130억달러, 2024년 96억달러로 조정됐지만, 2025년 다시 150억달러 이상으로 반등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수출 200억달러, 글로벌 시장 점유율 6%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방산은 더 이상 이벤트성 수주 산업이 아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중남미로 확장되는 안보 공급망 산업이다.

전쟁 이후의 시선은 결국 재건으로 이동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이 하나의 장기 투자 테마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10년 재건·복구 수요를 5,877억달러로 추산한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인프라·에너지·운송·주택·전력망 투자 수요의 총합이라는 점이다. 같은 질문은 이제 중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동 재건은 유럽과 다르다. 에너지 인프라, 정유·석유화학 설비, 전력망, 항만, 물류, 방산 체계가 동시에 재구축되어야 한다. 로이터가 인용한 Rystad Energy 추정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훼손된 에너지 관련 인프라 복구 비용은 최대 58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 중 석유·가스 설비만 최대 500억달러, 산업·전력·담수화 자산은 추가로 30억~80억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 한국은 제품을 파는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기를 맞추며 현장을 복구할 수 있는 국가다.

두 번째 변화는 중동의 재평가다. 중동은 오랫동안 무한한 에너지 공급 창고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제 중동은 상시적 안보 비용이 부과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단순한 운송 리스크가 아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물류비, 보험료, 정제마진, 전력 비용이 동시에 움직이는 병목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숫자는 이 문제의 크기를 보여준다. 2025년 기준 약 2,000만 배럴/일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물량의 80%는 아시아로 향한다. 또한 카타르와 UAE의 LNG 수출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며, 이는 글로벌 LNG 교역의 약 19%다. 반면 우회 가능한 파이프라인 여력은 350만~550만 배럴/일 수준에 그친다. 병목은 크고, 대체 경로는 작다.

이 변화는 에너지 공급망의 프리미엄을 높인다. 원전, 전력망, 변압기, 전선, LNG, 에너지 저장장치, 정유·화학 설비가 단순 산업재에서 안보자산으로 바뀐다. 실제로 한국의 전력기기 수출은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힘입어 2025년 1~11월 71.3억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은 26.5억달러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AI가 전기를 먹고, 전력망이 병목이 되며, 한국 전력기기가 수출 주도주로 재평가되는 구조다.

세 번째 변화는 사이클의 재평가다.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를 전통적인 경기순환 산업으로 바라본다. 재고, ASP, 공급 증가, 이익 피크아웃을 계산한다. 그러나 AI 국면은 기존 사이클과 다르다. 인간이 AI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 AI 투자는 효율화 투자가 아니라 생존 투자가 된다. 기업, 국가, 개인 모두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데이터는 이미 그 변화를 보여준다. IEA에 따르면 2025년 5대 대형 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 관련 자본지출은 4,000억달러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여기서 추가로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17% 증가해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율 3%를 크게 웃돌았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5년 485TWh에서 2030년 950TWh로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며, AI 전용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같은 기간 세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 반도체 수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한국 전체 수출은 2,199억달러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 수출은 785억달러로 139% 급증했다. DRAM 수출은 357.9억달러로 249.1%, NAND 수출은 53.9억달러로 377.5%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재고 사이클 회복이 아니다. AI 서버 투자, 메모리 가격 상승, HBM 중심의 구조적 수요가 동시에 만든 결과다.

따라서 모두가 사이클의 끝을 볼 때, 시장은 사이클 너머의 구조를 봐야 한다. 장기공급계약, 고성능 메모리,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력 수요, 냉각 시스템, 패키징, 네트워크 장비는 단순한 업황 개선이 아니다. AI 인프라의 기본값이다. 특히 AI는 아직 하나의 고유명사로 정의되지 않았다. 전기차가 테슬라라는 상징을 얻기 전까지 산업의 기대가 확장됐듯, AI 역시 최종 승자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투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전략의 핵심은 안보자산을 선점하는 것이다. 안보자산은 패권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역사적으로 안보자산은 소금, 철, 석탄, 석유를 거쳐 이제 반도체와 AI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패권국은 언제나 안보자산을 통제하려 했다. 하나는 우방국의 공급망을 지원하고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경쟁자의 공급망을 교란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 두 전략의 교차점에 있다.

투자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재건과 복구 역량을 가진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 방산, 조선, 건설기계, 전력기기, 인프라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봐야 한다. 원전, 전력망, LNG, 정유·화학,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AI 사이클을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HBM, 서버용 메모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은 장기 구조 성장의 영역이다.

2026년 05월 1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케이엠더블유 (032500)

중요한 건 올해가 아닌 내년도 실적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상향)
현재주가(5.18)	28,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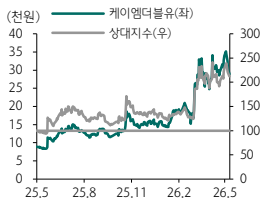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11.09
52주 최고/최저(원)	35,150/8,350
시가총액(십억원)	1,218.3
시가총액비중(%)	0.20
발행주식수(천주)	42,154.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68.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7
외국인지분율(%)	6.16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 인	30.4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1.0	390.6
영업이익(십억원)	11.3	111.9
순이익(십억원)	10.7	114.7
EPS(원)	255	2,721
BPS(원)	3,371	6,09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4	97.5	150.7	390.6
영업이익	(45.5)	(23.8)	1.6	111.9
세전이익	(37.4)	(30.4)	2.0	114.7
순이익	(38.6)	(27.0)	2.0	114.7
EPS	(969)	(672)	48	2,721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5,568.75
PER	(9.06)	(21.43)	635.42	11.21
PBR	2.43	4.48	9.64	5.18
EV/EBITDA	(11.15)	(43.91)	122.61	9.98
ROE	(24.24)	(19.66)	1.51	60.12
BPS	3,607	3,211	3,165	5,886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2개월 목표가 70,000원으로 상향, 6월 오기 전에 매수하세요

KMW의 12개월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KMW 주가에 있어 중요한 건 미국 통신사 CAPEX 전망 및 2027~2028년 추정 실적인데 미국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규제 정책 및 통신사 CAPEX 전망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실적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나 2027/2028년 실적 전망치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미국/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감안하여 Target Multiple을 상향 조정하였다. 국내 외 성장주, 특히 미국 광통신주를 기준으로 보면 KMW 목표주가 산정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이다. 한편 KMW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6/2일 개시되며, 2) 까다로운 전파 인증 절차가 행해지는 등 미국의 대중국장비 제재가 더 강화되는 양상이고, 3) 2027년 삼성전자를 통한 버라이즌 5G 장비 공급이 유력한 상황이며, 4) 글로벌 필터와 RU 시장에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무선통신장비주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 5월 내 매수를 추천한다.

무선통신은 2027년을 보고 주가 오르는 것, 1~2분기에 의미 부여할 것 없다

1분기 영업적자 기록으로 KMW 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가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KMW의 경우 최근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일부 광통신주와는 명확히 차이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광통신 붐을 이루는 현 시점에도 실적이 부진한 광통신주들의 경우 향후 실적에 대한 걱정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KMW를 비롯한 무선통신주들은 애초에 2026년 말 이후 미국 매출 발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광통신의 경우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전국망 구축 사업,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이 2026년 실적 호전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무선통신주의 경우엔 2026년 6월 이후 이루어질 미국 주파수 경매와 통신사 5G SA CAPEX 집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7~9월 미국 통신사에 공급할 장비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2026년 11~12월 초기 매출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6년 실적은 애초에 큰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KMW 2027~2028년 실적 전망에 집중하면서 미국 시장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6월 경매 참여자 공개 예정, 버라이즌 벤더에 대한 관심 증가할 것

6/2일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입찰업체들의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라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대규모 CAPEX 집행 계획을 언급한 AT&T와 더불어 버라이즌도 참여가 예상된다. 버라이즌 벤더로는 에릭슨과 더불어 삼성전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버라이즌은 국내 통신 3사 합산 CAPEX의 3배를 지출하는 전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다. 삼성의 벤더 M/S가 30%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 납품 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 2027~2028년도엔 KMW가 미국에서 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2026년 05월 1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아이씨티케이 (456010)

국내 최초 빅테크 레퍼런스 확보, 지금 매수하세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40,000원
현재주가(5.18)	19,59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111.09
52주 최고/최저(원)	26,650/11,100
시가총액(십억원)	272.3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13,901.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03.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4
외국인지분율(%)	2.28
주요주주 지분율(%)	
이정원 외 16 인	27.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7	29.6
영업이익(십억원)	5.2	8.7
순이익(십억원)	4.8	7.5
EPS(원)	345	539
BPS(원)	3,503	4,05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7	4.0	23.2	40.4
영업이익	(6.7)	(8.9)	5.8	19.5
세전이익	(5.8)	(6.7)	8.3	20.2
순이익	(5.8)	(6.7)	6.4	16.2
EPS	(467)	(499)	462	1,165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152.16
PER	(20.99)	(33.13)	41.34	16.39
PBR	3.02	5.23	5.27	3.99
EV/EBITDA	(18.32)	(27.99)	27.82	10.27
ROE	(22.20)	(15.36)	13.62	27.70
BPS	3,240	3,161	3,623	4,788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양자 업체는 초기 성과가 중요

ICTK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복제 불가능한 VIA PUF 기술을 인정받아 글로벌 빅테크에 보안칩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게 되었으며, 2) 이번 빅테크 공급을 레퍼런스 삼아 글로벌 빅테크 전반으로 고객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3) 카드, USIM 위주인 기존 보안칩 업체와 달리 향후 피지컬 AI향 보안 시장 전반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양자/보안/SW 업체들은 내수 의존도가 높아서 멀티플 확장이 제한됐었는데, ICTK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글로벌 테크 업체로 발돋움하며 급격한 멀티플/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빅테크향 보안칩 공급 시작, 글로벌 진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ICTK가 글로벌 빅테크에 보안칩을 공급한다. 단순히 세컨드 벤더가 아니라 기존 유럽 보안칩 업체들이 공급하던 물량을 대거 확보하여 점유율이 80~90%에 달할 예정이다. 양자암호 업체는 물론 국내 보안솔루션 업체를 통틀어 봐도 유례가 없는 수준의 공급 계약인데, 아무래도 AI,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글로벌 보안이슈가 대두되며 복제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ICTK의 VIA PUF 기술력이 크게 인정받은 덕으로 보인다. 이를 레퍼런스 삼아 향후에는 타 글로벌 빅테크의 IT 기기로 매출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조만간 ICTK 주가 급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빅테크향 보안칩 공급은 ICTK 주가 급등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ICTK의 해외 경쟁사인 대만 eMemory 사례와 비교하면 그렇다. eMemory는 주력 제품인 NeoFuse 성장세에 힘입어 2020년부터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가 역시 20년초~21년말 기간 동안 7배 급등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안상 취약하고 소형화가 까다로운 기존 보안칩 eFuse의 대체재로 NeoFuse가 부상했었고, TSMC 양산 레퍼런스를 확보한 덕에 Winbond, UMC, 삼성 등으로 확장이 용이했으며, 2019~2020년 중화권 5G 및 IoT 성장 흐름에 편승한 덕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ICTK의 빅테크향 보안칩 공급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ICTK의 PUF 기술이 기존의 보안칩들을 대체하는 양상인 가운데 전력이 필요없는 수동소자여서 보안안정성이 가장 우수하며, 이를 레퍼런스 삼아 글로벌 전반으로 고객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eMemory가 5G 흐름을 타서 급성장 했듯이, ICTK는 이번 보안칩 공급을 기반으로 로봇, 드론 등 피지컬 AI향 제품 전반에 보안칩을 공급하여 피지컬 AI 시대 보안칩 대표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Memory가 NeoFuse를 개발완료한 다음해부터 PBR이 3배에서 15배로 급등했고, NeoFuse 매출이 회사 실적을 본격 견인한 2021년에는 PBR 60배를 기록한 것을 돌이켜보면 ICTK도 급격한 멀티플 확장이 예상된다.

2026년 05월 19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삼영 (003720)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전력 부족이 부른 또 다른 사이클

Not Rated

현재주가(5.18) **10,6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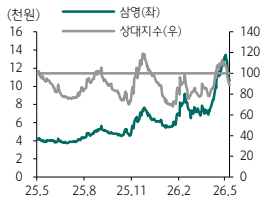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516.04
52주 최고/최저(원)	13,480/3,745
시가총액(십억원)	361.4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4,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77.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6
외국인지분율(%)	8.64
주요주주 지분율(%)	
이석준 외 6 인	25.4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00	N/A
영업이익(십억원)	25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35	123	126	153
영업이익	3	6	9	15
세전이익	3	13	9	15
순이익	3	19	8	15
EPS	79	548	237	387
증감율	(22.5)	593.7	(56.8)	63.3
PER	30.5	8.2	15.6	15.9
PBR	1.6	2.2	1.6	2.3
EV/EBITDA	13.0	14.8	10.7	12.9
ROE	5.2	27.9	11.0	15.4
BPS	1,525	2,051	2,274	2,630
DPS	0	20	20	3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1Q26 리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484억원(+13.6% QoQ, +54.5% YoY), 영업이익 60억원(+27.1% QoQ, +165.3% YoY)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본업 정상화와 신규 편입 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동반된 결과다. 커패시터 필름 6호기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며 신라인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5년 7월 편입된 캐스코의 영업이익 기여 폭 또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회사 삼영중공업의 분기 영업이익 역시 직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금번 실적은 단발성 어닝서프라이즈가 아닌, 본업·중공업·주물 3축이 회복과 확장 국면에 동시 진입한 신호로 해석된다.

캐스코: 전력 부족이 만든 선박엔진 발전기 신수요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압 불안정성 보완 필요가 맞물리면서, 선박용 저속엔진을 발전 용도로 전용하는 신규 카테고리가 부상하고 있다. 캐스코는 신규 고객사로 현대중공업과의 협업을 시작했으며, 엔진사업부의 캐파 초과 수주 물량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한화엔진 중심 매출 구조에서 매출처 다변화가 이뤄지는 국면이다. 동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CAPEX를 집행해 주물 라인을 1개에서 2개 체제로 확장할 계획이며,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조-가공 일원화 체제 전환, 마진의 구조적 점프

캐스코 인수의 본질은 주물 공장 확보 자체에 있으며, 이는 가공 중심 구조에서 주조-가공 일원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회사 삼영중공업은 라이너를 외부 조달해 가공만 수행하는 모델로 OPM이 5%대에 머물러 왔으나, 자체 주물 공장을 보유한 경쟁사 OPM은 25%를 상회한다. 가공과 주물 단계의 마진율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 만큼, 캐스코 라인 풀가동 시점부터 동사 연결 수익성이 단계적으로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 캐스코 단독 영업이익은 연간 80~100억원 수준에서 점진적 확대가 예상되며, 매출 또한 추후 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주물공장 증설을 통한 매출 500억원 추가 외형까지 더해지면, 중장기 이익 레벨의 가시성은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이익 레벨 구조적 상향 가시화 구간

2026년 연결 기준 예상 실적은 매출액 2,074억원(+35.4% YoY), 영업이익 263억원(+76.1% YoY)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3.9%/+3.3% 상향했다. 본업의 신규 라인 수율 개선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각형 배터리 업체향 2차전지용 절연필름 테스트도 병행되고 있다. 2차전지 절연필름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 주물 내재화에 따른 마진 레벨업, 2027년 말 캐스코 증설 라인 가동 등 2026~2028년에 걸쳐 트리거가 순차적으로 발현될 예정인 만큼, 이익 레벨의 구조적 상향 흐름이 강화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기대 요인은 금리와 비은행, 그리고 신금융

2026년 하반기 은행산업 전망 | 2026.05.19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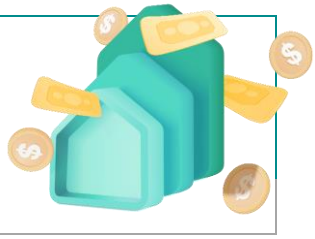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금리 상승과 맞물려 상승 중인 NIM. 하반기 숨고르기 예상되지만 재차 상승 국면 진입 예상. 핵심이익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현재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2%로 2011년 이래 최고점이었던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의 4.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미국 FOMC에서의 매파 분위기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 성장률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금리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채금리 반등 시점과 맞물려 은행 NIM도 2025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중인데 2026년 연간 NIM은 3년만에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재의 은행 금리감응자산·부채 구조상 금리가 25bp 상승한다고 가정시 이후 1년간 은행 NIM은 평균 약 2.5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화금리감응자산이 부채보다 큰 원화금리감응갭이 양(+)의 값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시 이론적으로 NIM이 상승하는 구조이다. 은행별 구간별 금리감응갭(자산·부채 규모)의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분기별 NIM 진폭과 연간 NIM 영향도 소폭이나마 상이하다
- 금리 감응갭이 클수록 분기별 NIM 진폭도 더 커지게 된다. 6개월이내 금리감응갭이 클 경우 초기 NIM 상승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후 금리감응갭 음(-)의 값이 커지면서 NIM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은행 중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분기별 NIM 변동 폭이 크고, 1년간 NIM 상승 폭도 소폭 더 크다. 반면 KB금융과 신한지주는 1년간 상승 폭은 소폭 적지만 1년 이후에도 NIM 상승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 올해 은행 NIM은 상반기 상승 이후 하반기에는 플랫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액주택담보대출 주택신용보증 출연료율 개편 영향에 주로 기인(약 -2~3bp 예상)한다. 여기에 조달금리의 후행적인 상승 영향도 일부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난 후 NIM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중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경우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NIM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 지속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추가 상승세를 보일 공산이 큰 상황이다
- 주식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증권수탁수수료와 은행 신탁이익 증가 등 수수료이익도 큰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1분기 증권자회사 증권수탁수수료는 평균 QoQ 70%, YoY 196% 급증했고, ETF 중심의 은행 신탁이익도 QoQ 28%, YoY 75% 증가했다. 4월 이후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1분기 평균을 뛰어넘고 있어 이자이익 외에 수수료이익도 추가 확대되는 등 핵심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건전성 우려. 1분기 연체율 상승은 계절성에 주로 기인. 당장 대손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듯

- 반면 경기 양극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사태를 계기로 고유가 상황 또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 확대 중이다
- 시기상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1분기 연체율이 다소 크게 상승했고, 매·상각을 감안한 실질 연체도 큰폭 순증했는데 다만 최근 4개년동안 1분기에는 항상 연체율 상승과 실질 연체가 크게 순증해 왔다는 점에서 이는 계절적 영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유추(연말 결산기 연체 회수 노력 집중 이후 1분기 연체율 상승 경향)한다. 따라서 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3분기부터는 고유가 영향이 건전성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체크는 필요하다
- 1분기 은행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룹 대손비용이 낮았던 이유는 실질 NPL 순증 규모가 크지 않았고 요주의여신은 순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비은행 대손비용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해외 CRE 관련 손실과 부동산 PF 영향이 거의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비은행 대손비용은 향후에도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높은 담보·보증 비중 등을 감안시 연체율 상승에도 당장 은행 대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공산도 크지 않다. 2026년 총자산대비 대손비용률은 0.29%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별 종목 이벤트에 따른 매수 추천



건설 Weekly | 2026.5.19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9.9%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매수하고, 삼성E&A와 DL이앤씨를 매도했다. 외인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를 매수, 삼성E&A, 삼성물산, 대우건설을 매도했다.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하락한 가운데, 삼성E&A와 GS건설, DL이앤씨의 낙폭이 컸다.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에 하락한 가운데, 이란과 미국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진 결과로 해석한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7.3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0.6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7주 연속 상승(+0.07%), 전세가는 48주 연속 상승했다(+0.11%). 수도권 매매가는 63주 연속 상승(+0.14%), 전세가는 64주 연속 상승했다(+0.20%). 서울 매매가는 68주 연속 상승(+0.28%), 전세가는 65주 연속 상승(+0.27%)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하락(-0.04%), 기타지방은 역시 하락했다(-0.02%).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41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7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4%,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9%), 인천 보합, 부산(-0.01%), 대전(-0.03%), 대구(-0.06%), 광주(-0.17%)가 하락했다.
- 5/12에 국토부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이후 4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자를 유지한자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있어 매도에 애로사항을 겪던 매도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5/9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 매매 매물 감소로 거래량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 이러한 조치는 매매거래량 활성화에 따른 B2C 인테리어 업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 미중 정상회담 관련하여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정상회담 내용에 건설 섹터와 관련한 내용은 이란(해협), 북한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고,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다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혹은 실천적인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달 중순 G7 정상회의에서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기대해볼 법하다.
- 삼성E&A 3분기 수주를 기대할만한 이벤트 2건이 있다. 최근 사우디 Khafji 육상 가스처리플랜트 입찰을 완료했다(4/30). 약 20억달러로 삼성E&A/L&T와 TR/Sinopec과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카타르 비료 프로젝트는 기술입찰 마감 기한이 6/15로 연장됐다. 입찰 경쟁사는 테크니몽/L&T, 삼성E&A/티센크루프/CCC, 사이펨/CTCI/CC7으로 알려졌으며, 삼성E&A 기대 수주 금액은 25억달러다. 3분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PPA) 경쟁입찰 참여 프로젝트가 나왔다. 관련 건설사로는 대우건설(굴업도, 고정식, 250MW), 코오롱글로벌(장보고, 공공주도형, 400MW)가 있다. 고정식은 총 1,000MW 내외 규모가 공고됐는데 약 1,600MW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공공주도형은 400MW 규모로 공고됐는데 560MW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 점수가 떨어질 경우 공고용량에 상관없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입찰 결과는 6~7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장보고 해상풍력이 낙찰될 경우, 2029년 착공이 예상된다.
-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유가 장기화 및 자재 가격이슈가 붉어질 수 있다. 개별 종목 이벤트로 대응하기를 제안하며, 삼성물산(반도체, 저PBR)과 아이에스동서(6월 경산 분양)를 TOP PICK으로 추천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5/18	270,500	281,000	3.8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5/18	1,819,000	1,840,000	1.15%	• 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하나금융지주 (086790.KS)	5/18	119,000	114,200	-4.03%	• CET 1 크게 하락했지만 2분기 회복 가능. 큰폭의 NIM 상승세 2분기 지속 전망 • 비은행 이익 턴어라운드 시작되었고 2027년 가속화 예상
한국금융지주 (071050.KS)	5/18	258,000	240,500	-6.78%	• 1Q26 Review 매출액 11.4조원(YoY +130.3%), 영업이익 9,599억원(YoY +85.0%) 기록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5/18	291,000	318,000	9.28%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한미약품 (128940.KS)	5/18	472,500	432,500	-8.47%	• 당뇨 환자 대상 미국 임상2상, 5월부터 개시하여 202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 • 시장의 기대가 높은 비만치료제 HM15275, 2027년 1분기 임상 완료 전망
CJ제일제당 (097950.KS)	5/18	228,500	221,500	-3.06%	• 전쟁 기인해 시황이 급변하면서 바이오 부문 손익, 예상대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중국 돈가 및 소비 회복에 따른 라이신 판매 증가 가능성 긍정적
팬오션 (028670.KS)	5/18	6,030	5,950	-1.33%	• 비벌크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며 에너지 선사로 리레이팅 기대 • 전쟁 이후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헤지 효과 발생
에스엘 (005850.KS)	5/18	71,900	64,800	-9.87%	• 현대차·기아 신차 사이클과 글로벌 공장 가동률 개선에 따라 램프 매출 성장 기대 • 고부가 LED 램프 비중 확대와 북미·인도 중심 수주 증가가 중장기 성장 동력
심텍 (222800.KQ)	5/18	100,300	100,400	0.10%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1%	-2.22%p	+78.39%	+15.4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물산 (028260.KS)	5/11	422,500	399,500	-5.44%	• 건설 수주 5조원·수주잔고 31.7조원으로 하이테크/데이터센터 중심 수주 모멘텀 지속 • 원전/SMR 수주 추진, 태양광 파이프라인 19GW 및 2030년 미국 5GW 운영자산 목표
팬오션 (028670.KS)	5/11	5,980	5,950	-0.50%	• 비벌크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며 에너지 선사로 리레이팅 기대 • 전쟁 이후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헤지 효과 발생
DN오토모티브 (007340.KS)	5/4	48,050	48,700	1.35%	• 핵심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재상장 가능성 낮아질 경우 지분 희석·수요 분산 우려 완화 • 자기주식 11.5%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확대 시 밸류업 모멘텀 작용 가능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1,147,000	-8.09%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18,000	18.88%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6,110	-2.48%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840,000	79.16%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96,800	5.33%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81,000	68.0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12,100	22.11%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63,000	39.25%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390,000	-4.99%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760,000	158.94%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5.84%	-15.48%p	+49.25%	-13.7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중국 4월 소매판매 (E 2.0%, 이전치 1.7%) ▪ 중국 4월 광공업생산 (E 6.0%, 이전치 5.7%) ▪ 중국 4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농촌제외) (E 1.7%, 이전치 1.7%)	▪ 일본 1분기 GDP SA (E 1.2%, 이전치 1.3%)	▪ 유로존 4월 CPI (E --, 이전치 3.0%)	▪ 한국 5월 소비자심리 (E --, 이전치 99.2) ▪ 일본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 ▪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2) ▪ 유로존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7.6) ▪ 미국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	▪ 한국 5월 소비자심리 (E --, 이전치 99.2) ▪ 일본 4월 CPI (E 1.6%, 이전치 1.5%) ▪ 미국 5월 소비자신뢰 (E --, 이전치 48)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미국 5월 CB 소비자기대 (E --, 이전치 92.8)	▪ 일본 4월 PPI 서비스 (E --, 이전치 3.1%) ▪ 한국 4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	▪ 한국 금리 결정 (E --, 이전치 2.5%) ▪ 유로존 5월 소비자기대 F (E --, 이전치 --) ▪ 미국 4월 PCE (E 3.9%, 이전치 3.5%) ▪ 미국 4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2%) ▪ 미국 1분기 GDP (E --, 이전치 2.0%)	▪ 일본 4월 실업률 (E --, 이전치 2.7%) ▪ 독일 5월 CPI P (E 1.6%, 이전치 2.9%)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